

다니엘서 - 제115번

마지막 세대의 예언적 특징을 밝혀내기

Jeff Pippenger

2024-03-04

외면당하고 있는 한 백성의 마지막 세대에게서 몇 가지 예언적 특징들이 드러난다. 그들은 사탄의 품성을 이루었으므로 독사의 세대다. 그들은 하나님의 원수들과 거룩하지 않은 결탁을 맺었으므로 간음하는 세대다. 그들은 보기는 하지만 깨닫지 못하고, 듣기는 하지만 분별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들이 회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는 그들의 마음이 둔하여진 것으로 표현된다. 바로 이 현상을 가장 먼저 언급한 이는 모세였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애굽 땅에서 여호와께서 너희 눈앞에서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나라에 행하신 모든 일을 보았다. 곧 너희 눈이 본 그 큰 시험들과 표적들과 큰 이적들이다. 그러나 오늘까지도 여호와께서는 너희에게 깨달을 마음과 볼 눈과 들을 귀를 주지 않으셨다. 신명기 29:2-4.

라오디게아의 '보는 것과 듣는 것' 현상이 처음 언급될 때, 하나님의 백성이 보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기초적 역사에 나타난 표적과 기사이다. 예레미야는 이 현상을 마지막 때 '어리석은 처녀들'의 속성으로 규정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첫째 천사의 선포로 시작하는 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이지를 거부하는 어리석은 처녀들의 태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말한다. 이러한 반역으로 인해 그들은 늦은비를 받지 못한다.

이 일을 야곱의 집에 선포하고, 유다에서 알리며 말하여라. 지금 이 말을 들으라, 어리석고 깨달음이 없는 백성아! 눈이 있으나 보지 못하고, 귀가 있으나 듣지 못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주께서 말씀하신다. 바다의 경계로 모래를 정하여 영원한 규례로 삼아 그것이 넘어가지 못하게 한 내 앞에서, 너희가 떨지 않겠느냐? 그 물결이 스스로 요동해도 능히 이기지 못하며, 울부짖어도 그것을 넘어설 수 없다. 그러나 이 백성은 배역하고 반역하는 마음을 품었으니, 그들은 배반하여 떠나갔다. 그들은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하지도 않는다. 이제 우리 하나님 주를 두려워하자. 그분은 제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추수의 정해진 기간을 보존해 주신다. 너희의 죄악이 이런 것들을 물러가게 했고, 너희의 죄가 좋은 것들을 너희에게서 가로막았다. 예레미야 5:20-25.

에스겔은 보되 깨닫지 못한다는 것으로 표현된 특성을 드러내는 자들을 패역한 족속으로 규정한다. 그들은 자신들의 기초의 역사를 보려 하지 않는 패역한 족속이며, 첫째 천사의 기별을 거절함으로 회심하지 못한 미련한 처녀들이다. 첫째 천사의 기별을 거절하는 것은 곧 모든 기별을 거절하는 것이니, 첫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둘째도 셋째도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러한 상태에서 늦은 비의 때에 이 처녀들에게는 늦은 비가 내리지 않는다. 예수께서 자신의 말씀에서 이 특성을 지적하신 후, 이어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제시하셨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복이 있고,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들과 의인들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으라. 누구든지 천국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길가에 씨를 받은 자라. 돌밭에 씨를 받은 자는 말씀을 듣고 곧 기쁨으로 그것을 받으나, 자기 안에 뿌리가 없어 잠시만 견디다가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걸려 넘어지느니라. 가시떨기 사이에 씨를 받은 자는 말씀을 듣되,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속임이 말씀을 숨 막히게 하여 열매 맺지 못하느니라. 좋은 땅에 씨를 받은 자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라. 그는 열매를 맺어 어떤 것은 백 배, 어떤 것은 육십 배, 어떤 것은 삼십 배를 내느니라. 또 다른 비유를 들어 그들에게 이르시되, 천국은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의 원수가 와서 밭 사이에 가라지를 덧뿌리고 가니라. 싹이 나고 열매를 맺을 때에 가라지도 또한 나타났더라.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그에게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는 어디서 생겼나이까?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도다. 종들이 그에게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그것들을 거두어낼까요? 그가 이르되, 아니다. 가라지를 거두다가 밭까지 함께 뽑을까 염려하노라. 추수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먼저 가라지를 거두어 단으로 묶어 불사르고, 밀은 내 곳간에 모으라 하리라. 마태복음 13:16-30.

어리석은 자들은 가라지요, 지혜로운 자들은 알곡이다. 열 처녀의 비유에서는 기름을 소유했느냐가 두 부류의 차이를 드러내며, 가라지와 알곡의 경우에는 씨, 곧 말씀이 이해되느냐에 그 구분이 달려 있다. 모세는 처음으로, 보지 않으므로 곧 이해하지 못할 한 부류를 언급하면서, 이해되어야 할 메시지를 기초가 되는 역사 속의 표적과 기사로 제시한다. 엘렌 화잇은 패역한 집의 눈멀게 하는 요소들에 대한 마지막 예언적 언급에서, 모든 의인들이 보고자 하던 것을 보도록 복을 받은 눈이 본 것이 바로 밀려주의 운동의 역사였다고 밝힌다.

1840년부터 1844년까지 주어진 모든 기별은 지금 힘 있게 전해져야 한다. 이는 많은 사람들이 방향 감각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그 기별들은 모든 교회에 전해져야 한다.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다. "너희 눈은 보므로 복이 있으며, 너희 귀는 들으므로 복이 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들과 의인들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3:16, 17]. 1843년과 1844년에 보였던 것들을 본 눈은 복이 있다. 원고 발표집, 제21권, 436, 437.

예수께서는 언제나 시작을 통해 끝을 보여 주신다. 첫 언급은 눈은 있으나 보지도 깨닫지도 못하는 자들을 가리키며, 마지막 언급은 패역한 족속의 기초 역사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거절되고, 그 결과 어리석은 자들이 늦은 비를 알아보지 못하게 됨을 지적한다. 1840~1844년의 역사는 고대 이스라엘이 이집트의 속박에서 해방된 사건으로 예표되었다. 초기 시험 과정을 통과하지 못한 탓에 고대 이스라엘은 가데스에 이르렀고, 거기서 그들은 열 정탐꾼의 거짓 보고를 받아들이고 자신들을 이집트로 되돌려 이끌 새 지도자를 뽑았다. 사십 년 뒤 그들은 다시 가데스로 돌아왔고, 모세는 반석을 두 번째로 쳐서 실패하였다.

모세가 실패했지만, 여호수아는 여전히 그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다. 가데스에서의 마지막 시험에는 중대한 반역이 뒤따랐는데, 이는 예수께서 언제나 시작을 통해 끝을 보여 주시기 때문이며, 사십 년의 시작에 가데스에서 있었던 열 명의 정탐꾼의 반역과 사십 년의 끝에 있었던 일 역시 가데스에서의 큰 반역을 보여 준다. 그러나 가데스에서의 모세의 반역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비전은 더 이상 지연되지 않았다.

1863년의 반역은 1888년의 더욱 격화된 반역으로 이어졌고, 다시 1919년의 더욱 격화된 반역으로 이어졌으며, 마침내 1957년의 반역으로 절정을 이루었다. 그 과정에서 예수께서는 라오디게아적 재림운동을 가데스로 되돌리셨다. 그는 셋째 천사가 도착하여 시험의 과정을 시작했던 그 역사로 그들을 되돌리셨는데, 그 과정은 궁극적으로 1863년의 반역과 라오디게아의 광야로 추방되어 방황하는 일을 드러냈다. 요한계시록 18장의 힘센 천사, 곧 셋째 천사가 내려온 2001년 9월 11일에, 셋째 천사는 라오디게아적 재림운동의 종결기 역사 속으로 들어왔다. 그때 그는 뉴욕시의 탑들이 무너졌을 때, 니므롯의 탑이 무너진 것으로 예표된 바벨론의 몰락을 선포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은 이해되지 않을 것이며, 그 영광으로 온 땅을 밝힐 빛은 그 전진하는 영광 가운데서 행하기를 거절하는 자들에 의해 거짓 빛이라고 불릴 것이다. 리뷰 앤드 헤럴드, 1890년 5월 27일.

고대 이스라엘이 그랬듯이, 현대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다. 2001년 9월 11일을 목격한 세대가 마지막 세대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21장에서 "이 세대"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그 세대를 하늘과 땅이 없어질 때, 곧 재림 때에 살아 있는 자들로 규정하셨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목도하며 살아 있는 그 세대는 자신들이 마지막 세대임을 입증하는 표적을 알아보게 될 것이다. 그들은 "모든 환상의 효력"이 더 이상 "지연"되지 않는 때에 살고 있는 자들임을 알고 깨닫게 될 것이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성전을 떠나실 때, 그들은 성전 파괴에 관해 하신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지 설명해 달라고 여쭙었다. 그 대화는 마지막 세대에 그분의 제자들이 나누게 될 대화를 대표하고 있었다. 제자들은, 그분이 반복하여 가르쳐 오셨듯이 라오디게아 상태의 재림교회가 임박한 일요일 법령 때 쓸려 나가게 되고, 그 안의 예배자들이 그분의 입에서 토하여 내버려져 더 이상 그분을 대변하는 자들이 아니게 될 것이라고 하신 말씀의 뜻을 이해하고자 했다.

제자들에게 대답하시면서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의 멸망과 그 뒤에 이어질 역사를, 세상의 끝에 이를 때까지 설명하셨다. 19절까지 역사적 개요를 제시하신 뒤, 그분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다루셨는데, 그 멸망은 십자가 사건 때에도 일어날 수 있었으나 하나님의 긍휼과 오래 참으심으로 약 사십 년 뒤로 미루어졌다. 그 사십 년의 끝에는 멸망을 피할 남은 자가 있을 것이었지만, 오직 그때 그분이 주신 표적을 알아볼 때에만 그러했다.

고대 이스라엘의 시작에는 사십 년의 기간이 있었는데, 이는 모세의 중보로 인해 사십 년 동안 연기된, 열 정탐꾼의 반역에 내린 심판으로 시작되었다. 고대 이스라엘의 끝에도 그리스도의 오래 참으심과 긍휼의 중보로 인해 사십 년 동안 연기된, 십자가에 대한 반역에 내린 심판이 있었다. 두 역사 모두에서 심판을 피한 남은 자가 있었다. 예수님은 항상 어떤 일의 끝을 그 시작으로 보여 주신다.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의 파괴와 관련된 징조에 대해 말씀하시며 그것을 '보응의 날들'이라고 부르셨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황폐함이 가까운 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하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떠나가며, 주변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라. 이는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징벌의 날들이기 때문이다. 누가복음 21:20-22.

“보복의 날”은 일곱 마지막 재앙을 뜻하며, 이 때문에 화이트 자매는 예루살렘의 파괴를 마지막 때 하나님의 집행 심판과 연관짓는다.

가까이 오라, 너희 민족들아, 들으라; 너희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아 들을지어다; 세상과 그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아. 여호와와 분노가 모든 민족 위에, 그의 맹렬함이 그들의 모든 군대 위에 임하였도다. 그가 그들을 철저히 멸하시고, 그들을 살육에 넘기셨도다. 그들의 죽임당한 자들이 또한 밖으로 내던져질 것이요, 그들의 시체에서 악취가 올라오며, 산들이 그들의 피로 녹아내리리라. 하늘의 만상이 다 소멸되고, 하늘이 두루마리같이 말려지며, 그 모든 만상이 떨어지리니, 포도나무에서 잎사귀가 떨어짐 같고, 무화과나무에서 무화과가 떨어짐 같으리라. 내 칼이 하늘에서 적셔질 것이니, 보라, 그것이 이두메아 위에, 곧 내가 저주한 백성 위에 심판으로 내려오리라. 여호와와 칼이 피로 가득하고, 기름으로 기름지게 되었으니, 곧 어린양들과 염소들의 피와 숫양의 콩팥의 기름으로라. 이는 여호와께서 보스라에서 제사를 베푸시고, 이두메아 땅에서 큰 살육을 행하심이라. 또 외뿔짐승들이 그들과 함께 내려오고, 송아지들이 수소들과 함께 내려오리니, 그들의 땅이 피에 흠뻑 젖고, 그들의 흠이 기름으로 윤택하게 되리라. 이는 여호와와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갚으시는 해이니라. 이사야 34:1-8.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첫 공개 발표를 하시며 자신이 메시아임을 선포하셨다. 그 발표는 예언적으로 "최초 언급의 법칙"에 의해 좌우되었다. 그가 선택하여 읽으신 본문은 그분의 사역에 "주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는 일이 포함되어 있음을 밝혀 주었다. 이는 이사야에 따르면 "시온의 송사에 대한 보응의 해"이기도 하다.

나사렛에서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자신이 메시아임을 선포하셨다. 그때 그의 말씀을 들었으나 깨닫지 못한 자들이 그를 절벽에서 밀어 떨어뜨려 죽이려 하였다. 그의 사역의 시작은 고향 사람들의 그를 죽이려는 시도로 특징지어졌고, 그의 사역의 끝에는 그의 백성이 실제로 그를 죽였다. 그의 사역은 자신이 메시아임을 밝히는 것이었고, 그는 세례 때 기름부음을 받으심으로 메시아가 되셨다. 그의 세례 때 내려온 신적 표징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성취를 확증하였다. 1840년 8월 11일, 그 역사에서 시험의 기별에 대한 예언을 확증하기 위해 신적 표징이 내려왔다. 그리고 2001년 9월 11일에는 그 역사에 대해 예언된 그 기별을 확증하기 위해 신적 표징이 내려왔는데, 그것은 늦은 비의 기별이다.

사마리아 사람들과 함께 이틀 동안 수고하신 후, 예수께서는 갈릴리로 가는 여정을 계속하기 위해 그들을 떠나셨다. 그가 젊은 시절과 성년 초기의 시간을 보냈던 나사렛에서는 지체하지 않으셨다. 자신이 기름 부음 받은 이라고 선언하셨을 때 그곳 회당에서의 그의 영접이 너무나 좋지 않았기에, 그는 더 열매 맺을 만한 밭을 찾아, 듣는 귀를 가진 이들과 그의 기별을 받아들이 마음의 지닌 이들에게 설교하기로

결심하셨다. 그는 제자들에게 선지자는 자기 고향에서는 존귀를 받지 못한다고 선언하셨다. 이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 가운데서 과시하지 않고 살아왔고 어릴 때부터 가까이 알아온 사람에게서 놀랍고도 존경스러운 발전을 인정하기를 자연스레 꺼려하는 성향을 보여 준다. 그러면서도 바로 그 사람들은 낯선 이나 모험가가 내세우는 주장에는 한껏 흥분할 수도 있다. 예언의 영, 2권, 151쪽.

누가복음 21장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죽지 않는 마지막 세대, 곧 14만 4천 명을 지목하신다. 그분은 본래는 자신의 아버지의 집이었으나 이후에는 유대인들의 집이 되어 버린 그곳을 마지막으로 방문하셨을 때부터 시작된 역사를 제시함으로써 그렇게 하신다. 예수께서 제시하기 시작하신 역사적 서술에서, 예루살렘과 제자들이 알고자 했던 그 성전이 파괴될 시점(서기 70년)에 이르렀다. 그분은 그 파괴를 '보응의 날들'로 규정하셨는데, 이는 그분의 사역을 시작하시며 하신 첫 선포의 일부였다. '보응의 날들'은 서기 70년에 있었던 예루살렘의 파괴뿐 아니라, 마지막 일곱 재앙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진노의 때도 가리켰다.

이는 만군의 주 여호와와 날, 곧 원수 갚는 날이라. 그가 그의 대적들에게 원수를 갚으실 것이다. 칼이 삼키며 배부르고 그들의 피로 취하리니, 이는 만군의 주 여호와께서 유프라테스 강가 북방 땅에서 희생이 있느니라. 예레미야 46:10.

“유프라테스 강가에 있는 북쪽 땅에서의 희생 제사”로 상징되는 바벨론에 대한 “보복의 날”은 곧 임할 일요일 법령에서 시작된다.

여호와와 진노로 말미암아 그곳에는 사람이 살지 못하고, 온전히 황폐하게 되리라. 바벨론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그 모든 재앙을 보고 쉬익 소리 내어 비웃으리라. 사방에서 바벨론을 대적하여 진을 치라. 활을 당기는 너희는 모두 그를 향해 쏘되, 화살을 아끼지 말라. 이는 그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음이라. 사방에서 그를 향하여 함성을 올려라. 그가 항복하였고, 그 기초가 무너졌으며, 그 성벽이 허물어졌도다. 이는 여호와와 원수 갚으심이니, 그에게 보복하라.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 바벨론에게서 씨 뿌리는 자와 추수 때 낫을 드는 자를 끊어 버려라. 압제하는 칼을 두려워하여 각기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가며, 각기 자기 땅으로 도망하리라.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몰아냈도다. 처음에는 앗수르 왕이 그를 삼켰고, 마지막에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뼈를 꺾었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보라, 내가 앗수르 왕을 벌한 것 같이 바벨론 왕과 그의 땅을 벌하리라. 내가 다시 이스라엘을 그의 거처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먹을 것이며, 에브라임 산과 길르앗에서 그의 영혼이 만족하리라. 그 날들에, 그 때에,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하나도 없겠고, 유다의 죄들을 찾을지라도 발견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남겨 둔 자들을 용서할 것임이라. 메라다임의 땅을 치러 올라가 그곳을 대적하고, 브곳의 주민들을 치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그 뒤를 따라 철저히 멸하라. 내가 네게 명한 모든 대로 행하라. 그 땅에 전쟁의 소리와 큰 파멸의 소리가 있도다. 온 땅의 망치가 어찌하여 부서져 산산이 조각났는가! 바벨론이 어찌하여 민족들 가운데 황무지가 되었는가! 내가 네게 울무를 놓았으므로, 바벨론아, 네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잡혔도다. 네가 발견되어 붙잡혔으니, 이는 네가 여호와를 거스르며 싸웠기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무기고를 여시고, 그의 분노의 무기를 꺼내셨으니, 이는 갈대아 땅에서 행하시는 만군의 주 여호와와 일임이라. 땅 끝에서부터 그를 치러 와서, 그의

창고들을 열라. 그를 더미 같이 쌓아 올리고, 철저히 멸하라. 그에게서 아무것도 남기지 말라. 그의 수송아지들을 모두 죽이라. 그들을 도살하러 내려가게 하라. 화 있을진저! 그들에게는 날이 이르렀고, 보응하실 때가 되었고도다. 바벨론 땅에서 도망하여 피한 자들의 소리가 있으니,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원수 갚으심, 그의 성전에 대한 보복을 선포하려 함이로다. 바벨론을 대적하여 활 쏘는 자들을 모아라. 활을 당기는 너희는 모두 사방에서 그것을 에워싸 진을 치고, 그 중 아무도 피하지 못하게 하라. 그녀의 일한 대로 그 일에 따라 갚아 주고, 그가 행한 모든 대로 그에게 행하라. 이는 그가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향하여 교만하였음이라. 예레미야 50:13-29.

서기 70년 예루살렘의 파괴는, 미국에서 임박하게 시행될 일요일법을 기점으로 시작되는 바빌론의 음녀에 대한 집행 심판을 상징한다. 예수님은 자신이 서기 70년을 임박한 일요일법으로 가리키고 있음을 알고 계셨다. 이는 그분이 자신의 말씀의 저자이시며, 그분은 말씀 그 자체이시기 때문이다. 마지막 세대가 도래했음을 알려 주는 표징이 무엇인지 이해하려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1장에서 제시하신 예언의 배경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다음 글에서 이 연구를 계속할 것이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이 지구 역사상 가장 어두운 시기에 일어날 것이다. 노아의 때와 롯의 때는 인자가 오시기 직전의 세상 형편을 보여 준다. 성경은 이 때를 내다보며 사탄이 모든 권능과 "불의의 모든 속임수로" 역사할 것이라고 선언한다. 데살로니가후서 2:9, 10. 이 마지막 날들에 급속히 더해 가는 어둠과 무수한 오류와 이단과 미혹을 통해 그의 역사가 분명히 드러난다. 사탄은 세상을 포로로 삼을 뿐 아니라, 그의 속임수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교회들 속까지 누룩처럼 퍼져 가고 있다. 대배도는 한밤중처럼 짙은 어둠으로 깊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것은 시련의 밤이요, 눈물의 밤이요, 진리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밤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 어둠의 밤 속에서 하나님의 빛이 비칠 것이다.

그분은 '어둠 속에서 빛이 비치게' 하신다. 고린도후서 4:6.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창세기 1:2, 3. 이처럼 영적 어둠의 밤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아가며, '빛이 있으라'고 하신다. 그분의 백성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신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와 영광이 네 위에 떠올랐음이라.' 이사야 60:1.

"보라,"라고 성경은 말한다. "어둠이 땅을 덮고 짙은 어둠이 백성을 덮으려니와, 그러나 주께서 네 위에 일어나시고 그분의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리라." 2절. 아버지의 영광의 광채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 그분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시려고 오셨고, 그분에 대하여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으셨다" 또 "두루 다니시며 선을 행하셨다"고 기록되어 있다. 사도행전 10:38. 나사렛의 회당에서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셨음이라. 포로 된 자들에게 해방을, 눈먼 자들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들을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누가복음 4:18, 19. 이것이 그분이 제자들에게 맡기신 사명이었다. 그분은 말씀하셨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이 너희의 선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14, 16. 선지자와 왕들, 217, 218.